

盧대통령 “NLL 영토선 아니다” 논란

노무현 대통령이 1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 “그 선이 처음에는 우리 군대(해군)의 작전 금지선이었다”며 “이것을 오늘에 와서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데 이렇게 되면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가진 여야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휴전선은 쌍방이 합의한 선인 데 이것은 쌍방이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영토선”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야 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작전 금지선 일 뿐”

한나라 “대통령 발언 충격적... 시각 교정 필요”



노무현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강재섭 한나라당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5개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갖고 2007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했다. /연합뉴스

노 대통령은 이어 종전선언을 위한 3~4차 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관련, “실제 선언을 언제 할 것이냐는 노

력해 가야 할 문제이지만 6자회담의 이행속도에 따라서 가야 할 문제이고, 이 선언이 6자회담, 북핵 폐기의

속도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경협과 관련, 노 대통령은 “경협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논리상 핵, 평화 문제보다 경제가 후순위로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핵과 평화 문제를 푸는 지렛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호관계가 선순환 과정으로 가도록 잘 조정해야 하는 것이 경제협력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찬에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NLL 문제를 확실하게 하고 ▲국방장관회담에서 남북자·국군포로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며 ▲북핵 문제와 관련한 국제공조와 ▲민간주도의 경협 원칙 확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부분의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했다고 나경원 대변인이 전했다.

나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NLL 관련 언급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강 대표가 매우 충격적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 대통령의 시각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얘기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美 “갈비 포함 모든 쇠고기 수입하라”

한미 쇠고기 검역협의 첫날

11일 안양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열린 한미 쇠고기 검역 전문가 회의에서 미국 측은 나이나 부위 제한을 없애고 갈비를 포함한 모든 쇠고기를 수입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미국의 반복적인 수입위생조건 위반 사실과 수입 위험평가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등을 들어 일단 모든 종류의 광우병 위험물질(SRM)과 내장,피리 등의 부산물은 받을 수 없다고 맞섰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 넘게 이어진 협상에서 양측은

첫 날인만큼 자신들의 입장과 요구 사항을 최대한 상대방에 전달하는데 주력했다.

척 램버트 미국 농업부 차관보는 회의 시작 직후 “한국 소비자나 무역업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기준을 우리(양측 협상단)가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지침에 따른 ‘나이,부위 제한없는 쇠고기 전면 개방’ 요구를 분명히 했다.

현행 OIE 권고 지침에 따르면 ‘광우병위험물질’ 쇠고기의 경우 교역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나이와 부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SRM의 경우도

편도와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는 소의 나이에 관계없이 반드시 빼야 하지만, 월령이 30개월 미만인 뇌,두개골,척수 등의 SRM은 제거할 의무조차 없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광우병 원인물 질인 변형 프리온의 분포 확률이 높은 편도·뇌·두개골·척수 등 SRM의 수입을 최대한 막고, 국내 수요는 많지만 미국내 소비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안전성 검증이 미흡한 사골, 피리, 각종 내장 등도 일단 수입을 금지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협상에 임했다. 또 ‘30개월 미만’이라는 현행 연령 제한 규정도 고수했다. /연합뉴스

“美, 평양에 대표부급 공관 검토중”

RFA, 의회 소식통 인용 보도

미국 정부가 북한과 외교관계 수립을 추진하며 “연락사무소”보다 높은 “대표부(Representative Office)급”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미국 의회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 의회 소식통은 “미국은 아직 연락사무소 또는 대표부 중 무엇을 평양에 설치할 지 결정하지 않았지만 대표부 수준의 외교관계 수립이 가장 큰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RFA는 전했다.

RFA는 “북한과의 대표부 개설은 핵 폐기 합의 이행에 맞춰 북한과 맺을 외교관계 수준을 놓고 미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들 사이에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구체화한 형태로 다듬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강재섭 “안상수, 피의자라 못 와” 윤승용 “나도 고소 당해”

靑-한나라, 정치권 고소 사태 청와대서 ‘신경전’

여야 정당 대표들과 청와대 관계자가 11일 최근 ‘난무’하는 정치권의 고소 사태를 놓고 환담을 하다 말에 가시를 섞으면서 ‘신경전’을 벌였다.

장소는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정당대표들을 초청한 청와대 본관의 총무전실. 노 대통령이 오찬장에 도착하기 전 가벼운 환담을 주고받는 자리였다.

먼저 포문을 연 사람은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였다.

강 대표는 같은 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불참에 대해 “한 사람만 들어가면 되지 않겠나”라며 “안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어떻게 이런 자리에 오냐고 해서 안왔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국정원과 국제청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죽이기’ 공작정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배후로 청와대를 지목한 데 대해 청와대가 이 후보, 이재도 최고위원과 함께 안 원내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에 고소한 사실을 염두에 둔 것이다.

강 대표는 그러면서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을 향해 “지난번 고소에서 저를 빼주셔서 고맙다”고 하면서도 “안 되는 것을 이해관계로 풀라고 있는 것이 정치인이다. 고소·고발을 하는 것은 정치인이 정치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청와대의 한나라당 인사에 대한 고소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에 윤 수석은 “나도 고소당했다”며 “피장파장 아니냐”는 심경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日 총리 ‘특사’ 곧 방북할 듯

야마시키 다쿠 전 자민당 부총재가 일본 총리의 ‘대북 특사’ 자격으로 조만간 방북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추이가 주목된다.

북핵 사태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11일 “일본인 납치 문제로 북·일 관계정상화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가 과감한 행보를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본인의 방북을 서두르기 보다는 자신의 특사를 파견할 개연성이 높으며 특사는 야마시키 전 부총재가 유력하다”고 말했다.

특히 비핵화 2단계 로드맵이 담긴 6자회담 합의문이 지난 3일 최종 채택된데다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이 시작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야마시키 전 부총재의 방북은 빠르면 다음주에도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연합뉴스

中 “중국 지원 없이 남북통일 불가능”

중전선언 배제설 강한 불만

남북한은 중국과의 우호관계 발전과 동시에 남북한 관계발전을 추구해야 한반도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고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이 11일 주장했다.

중국의 한반도 정세에 정통한 이

소식통은 이날 중국은 일관되게 남북한이 외부의 간섭없는 상황에서 자주와 평화 원칙 아래 통일을 이룩하기를 주장해왔다고 밝히고 중국은 한반도 통일이 완화된 후 통일이 조속되도록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건설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남북한 지도자가 한민족의 응집력을 바탕으로 협력과 지혜를 발휘해 중국과의 우호관계 아래 통일을 추구하면 통일의 발걸음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주장은 제2차 남북 정상회담 때 발표된 ‘10·4 평화선언’이후 한 반도 중전선언을 위한 협상에 중국이 배제될 수도 있다는 설이 나오는 가운데 나와 중국의 지원없이 남북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중국측 메시지를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됐다. /베이징·연합뉴스

“중전회담, 북핵 어느 단계서 열릴지 몰라”

이재정 통일, 관훈클럽 토론회서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11일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3~4차 정상 중전선언 회담 개최 시기에 대해 “이 문제는 좀 더 포괄적으로 봐야 할 것 같다”며 “현 단계에서 분명한 해답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

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중전선언 시기가 북핵폐기의 어느 단계에서 이뤄져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 북핵폐기가 완료된 뒤에야 평화협정 체결과 중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미국 입장과 시각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핵불능화, 핵폐기 문제는 한 반도 평화체제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북·미 관계정상화, 6자회담 틀 속에서의 국제적인 합의와 이행에 관한 과정, 남북 간 노력과 협력 등이 모두 같이 가야하는 문제이니 실제 어느 시점에서 이뤄질 수 있는지는 분명한 해답을 현 단계에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관련국 간 협의와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美 고교에서 또 충격사건 5명 부상

미국 클리블랜드의 석세스테크 고등학교에서 10일 오후(현지 시각) 발생한 충격사건으로 최소 5명이 총상을 입은 가운데 한 어머니와 학생들이 오열하고 있다. 현장에서 사망한 범인은 다른 학생과 싸움을 한 뒤 정학 처분을 받자 이에 격분해 충격사건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P·연합뉴스

다들 물어봐 카레 검색 **이시** 마늘주사 후루민 **골프보러**

<http://cafe.daum.net/furumin>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2길 12 (삼성동) 후루민주사 (주) 02-552-5889

마늘주사 후루민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마늘주사 후루민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마늘주사 후루민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12월 15일 시범착공!!

돈되는 자격증!! 초창기 시범을 노려라!!

‘부동산대출중개사’가 뜬다!

자격기본법(법률 제5733호)에 의해 시행된 협회법인자격. 자격유치자 중 취업희망자 우선 원포함! 학생·주부·퇴직자들에게 인기!!

1.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2.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3.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4.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5.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6.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7.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8.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9.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10.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11.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12.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13.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14.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15.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16.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17.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18.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19.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20.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21.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22.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23.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24.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25.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26.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27.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28.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29.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30.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31.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32.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33.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34.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35.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36.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37.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38.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39.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40.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41.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42.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43.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44.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45.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46.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47.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48.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49.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50.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51.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52.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53.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54.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55.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56.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57.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58.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59.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60.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61.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62.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63.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64.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65.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66.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67.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68.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69.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70.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71.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72.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73.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74.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75.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76.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77.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78.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79.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80.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81.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82.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83.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84.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85.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86.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87.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88.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89.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90.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91.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92.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93.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94.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95.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96.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97.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98.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99.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100.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